

엮히고설킨 난제... ‘2027년 vs 2030년’ 입장차 극명

심층분석 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의대 언제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개교 시기를 놓고 전남도와 정부 주무부처 간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정확한 설립 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대학 통합 심사 결과와 내년 초 의사인력 공급추계위원회의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 여부가 구체적인 개교 시점을 확정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兩 대학 통합·정원 배정 선결과제 산적
규제특례 적용 ‘유연한 통합’ 방식 추진
국립대통폐합심사숄 내달께 결론 ‘촉각’
교육부 ‘2030년 개교’에 무게 실는 상황
道 “내년 초 정원 배정시 2027년 가능”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은 정부의 국정과제 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에 포함됐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를 근거로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물리적 타임라인이 1년4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관련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 통합 추진을 공식 합의한 목포대·순천대는 같은 해 12월 말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올해 9월 대학특성화 및 거버넌스 체계 등 주요 사항을 보완한 대학통합수정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통합 교명 선정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교명 공모를 실시해 각 대학별 3개, 국민공모 2개, 컨설팅업체 2개 등 10개 후보를 추려냈다.

양 대학은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최종 1·2순위 교명안을 결정하고 늦어도 12월 초까지 교육부에 제출해 통합대학 교명 확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내년 초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공급추계위원회에 전남 의대 몫 정원 배정을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비 평가 인증 신청 등 전남 의대 개교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는 2027년을 의대 개교 시점으로 설정하고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2030년 개교 가능’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가 2030년 3월 개교로 한 전남 의대 설립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대로 추진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통합을 전제로 전남에 의대가 세워져야 한다는 데 교육부는 적극 동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의사인력 공급추계위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 확정 등 추진 과정을 역순으로 따져보니 서둘러 추진하면 2030년 3월 개교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다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크숍에서도 “2030년 3월 개교”를 골자로 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세부 이행계획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전남도는 오는 12월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심사 결과 발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양 대학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대학 통합 신청서를 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립대 간 통합 모델 지원을 위해 기존 흡수 통합이 아닌 캠퍼스별 특성화를 토대로 자율성, 독립성, 일부 인사권까지 각 캠퍼스 총장에 부여하는 ‘유연한 형태의 대학 통합’을 지정·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제동이 걸리면서 전남도와 양 대학은 기존 고등교육법에 따른 특례 적용으로 선회, 대학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양 대학 통합과 관련,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는 통합대학 거버넌스로 1명의 통합 총장이 캠퍼스 부총장을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남도와 양 대학은 동·서부권 갈등 유발, 대학 구성원 반발 등을 우려해 양 대학 총장을 유지하는 형태인 ‘유연한 통합’을 대학 통합 규제 특례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깊게 스민 남도의 가을 휴일인 16일 오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산림연구원이 알록달록한 오색 단풍으로 물들며 늦가을 정취를 뽐내고 있다. 기상청은 17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번주 내내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다. /김애리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시 ‘세수 핑크’ 1천443억 지방채 차환 포기...감소폭 커져

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 단행

광주시의 올해 지방채 수입이 당초 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면서 1천4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 경정예산안(정리추경)’에 따르면 광주시의 3차 추경 세입예산은 2차 추경 때보다 4천526억원(5.23%) 줄어든 8조2천3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지방채 수입 결손 규모는 1천443억원으로 시가 당초 예상한 1천400억원보다 다소 늘었다.

세외수입은 56억원 줄어든 반면, 지방교부세는 44억원 증가했다.

당초 추계했던 ‘지방교부세 540억원·세외수입 240억원 감소’보다는 다소 나아진 수준이다.

다만,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을 모두 반영한 총 세수 결손액은 1천456억원인데도 전체 세입이 4천526억원이나 줄어든 것은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가 저금리 차환을 위해 3천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세입에 잡았지만 국고채 금리가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 차환을 포기했고, 이 발행분이 세입에서 빠지면서 감소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경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해 세입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국내 경제성장률은 2%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또 지난 9월 정부의 국세 추계 감액에 따라 지방채 규모도 함께 줄어든 게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직접 집행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각종 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영하권 ‘뚝’...“당분간 추워요”
일부 지역엔 ‘첫눈’ 내릴 듯

이번 주 광주·전남은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일부 지역에는 첫 눈도 내리겠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4~9도, 8~12도로 예보됐다.

최저기온은 전남과 비슷하나 최고기온이 10도가량 낮아진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17일 광주·전남 북부 지역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전남 서해안에는 오후 6시 이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18일 일부 지역의 경우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18일 최고기온 분포는 17일과 유사하나 최저기온은 소폭 하락하겠다. 이날 화순·곡성·보성의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져 가장 춥겠다. 나머지 지역은 1~6도다.

19일까지 영상권을 유지하던 최저기온은 20일부터 영하로 떨어지겠다. 20일 곡성의 최저기온이 영하 1도로 가장 낮겠으며 나머지 지역은 0~5도로 전망됐다. 이날 최고기온은 12~14도로 예보돼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9~20일 광주·전남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형우기자

Today	
중고거래플랫폼노소사가·먹튀 급증	6면
소상공인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렵다”	12면
“박찬호 이틀”...최형우·양현종은?	16면

松川 (주)송천

전기공사업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양 승 환 대표이사





松川 (주)송천

본 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시무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6-2(월출동 971-39, 2층)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